

# ‘시민 안심지킴이’...순천시, 방범 CCTV 확대 설치

### 방범 CCTV 48개소 96대 설치 2622대 365일 24시간 통합관제 묻지마 살인 여파로 600대 확충 “안전한 귀갓길 위해 도울 것”

순천시가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투입해 방범용 CCTV 96대를 신규 설치했다.

주요 설치 장소는 주민 통행량이 많은 읍면지역의 마을입구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및 교차로, 범죄 안전사고 취약지역, 통학로 등이다.

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신대지구 신대초등학교 앞 삼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롯데슈퍼 사거리에 6대를 설치했으며, 상삼사거리에는 차량방범 CCTV 2대를 설치했다.

방범 CCTV는 야간에도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200만 화소 이상 야간 칼라 성능이 지원되는 고화질 카메라(Full-HD)를 설치했다.

현재 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는 총 2622대의 방범 CCTV를 운영 중이며, 경찰관 3명과 관제사 33명이 4개조로 2교대해 365일 24시간 상시 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강력범죄 및 가출인 발견, 수배자 검거 등 총 70건의 범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으며 비상벨 및 교통사고, 재난재해 대응, 청소년 비위 계도 등 생활 방범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1597건의 성과를 올렸다.

순천시는 앞서 밤길을 걷던 10대 여학생(18)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박대성(30) 살인사건)을 계기로 조례동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600여 대를 보강 설치했다.

신상공개 결정된 피의자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자정을 넘긴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귀갓길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사건 현장 일대는 상가와 모텔 등 숙박 시설, 나이트클럽 등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곳인데도 일부 거리가 어둡고 CCTV·가로등 등 방범 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



신대지구 롯데슈퍼 사거리에 방범 CCTV 확대 설치됐다.

순천시 제공

로 파악됐다.

조례동 일대를 비롯해 순천 지역 노후 CCTV 22대를 교체하고 방범 취약지역 20곳에 40대를 추가 설치한 바 있다.

여성과 청소년 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시와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를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하고 도로를 밝히는 표지 병·반사경·안심 벨·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심

길’ 조성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안심길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사건 현장인 조례동 일대에는 기동순찰대가 배치돼 1일 4팀(팀당 7명)이 순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범 CCTV를 확대하고, 관제와 경찰서 등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 장흥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피해 장흥읍·용산면 대상

장흥군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읍, 용산면 2개 읍면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국토교통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등)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100% 감면되며, 그 외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접수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승인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향동 은행나무아래로 축제’ 성료 순천시 향동행정복지센터

순천시 향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문화의거리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인 ‘제10회 향동 은행나무아래로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약 1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며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은행나무길을 순천의 가을 명소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향동의 마스크트 ‘향도령’이 방문객을 맞이하며 축제의 상징성을 더했다.

축제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자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개방형 무대를 도입했다. 은행알 브로치 만들기, 바다유리 목걸이 만들기 등 자연과 공생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은행잎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자연과 공생하는 체험거리’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축제의 상징인 노란 ‘은행핀’을 제공해 거리 곳곳에 은행잎이 춤추는 듯한 가을 분위기를 연출했다.

인기 프로그램인 ‘가을우체통’과 ‘은행나무 즉석사진관’은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400여 명이 참여한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 99%에 가까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신광래 행사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향동 주민, 소상공인, 방문객들이 모두 웃음 짓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원도심을 이끄는 가을 축제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고흥군 ‘농촌사랑 한마음대회’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참여 개최

고흥군은 제29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하고 1500여 명의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화합·단결·친목을 다지고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17회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사랑 한마음대회’를 지난 5일 고흥군민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대회는 ‘함께하는 행복 고흥! 성취하는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4-H본부·4-H연합회) 4개 단체의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농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화합 한마당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는 농업인 학습단체 성과물 및 국화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고흥=심정우 기자

### 여수시, 중화권 박람회 참가 해외 MICE 유치 활동

여수시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난강전람관에서 개최된 중화권 박람회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하여 해외 마이스(MICE) 산업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날 시는 여수의 마이스(MICE·Member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기반 시설 및 인센티브 지원 내용 등을 홍보하고 대만의 주요 여행사인 可樂(콜라), 雄獅(라이언), 百威(백위), 山富(산복), 大都會(대도회), 巨匠凱旋(거장), KKday(케이케이데이) 등 7개 업체와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대만 마이스(MICE) 바이어 대상 여수 마이스(MICE) 인센티브 지원 내용 및 기반 시설 수시 홍보 △여수 마이스(MICE) 행사 유치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설명회, 초청 팸투어 등 추진 △양 도시 연계 마이스(MICE)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 등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제4회 보성예술제’가 지난 5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예술의 향기가 머무는 보성’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군민이 만든 축제”... 제4회 보성예술제 성황

###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펼쳐

지난 5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보성예술제’가 군민의 열띤 참여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4회 보성예술제’는 전통 예술과 현대 문화가 조화를 이룬 예술제로, (사)보성소리보존회·(사)보성소리마당·보성소리창극단·보성아리랑예술단 등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가해 보성의 소리를 알리는 공연이다.

이날 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해 타악, 국악, 댄스, 민속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지역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즐거움을 선사했다.

다카포아리아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화려한 막을 올렸으며, 이후 타악그룹 열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예술제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보성의 소리와 전통을 담은 100인 판소리합창 공연과 보성초, 보성여중, 보성고 학생들의 댄스팀 공연은 젊은 세대와 지역 어르신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끌어냈다.

이어 북내면 길쌈놀이, 노동면 들뜰놀이, 미력면 벼구놀이 등 보성의 전통 민속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미술품 전시와 더불어 천연염색 체험, 보성맥북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돼 예술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제4회 보성예술제를 통해 보성의 전통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군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보성군,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 시작

보성군이 오는 11월부터 노동면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별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매입을 시작한다.

2024년 벼 수확 예상량은 141만1000여 포대로 지난해 대비 약 4.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비축미곡 총 매입 물량은 14만9199포대/40kg(산물벼 6만7580포대, 일반벼 5만5199포대, 가루쌀 2만6420포대)이다.

군은 쌀값 하락세의 대책으로 시장격리곡 3만3689포대/40kg(포대벼 3만2929포대, 친환경 760포대)도 매입 일정

에 맞춰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수확기 가격(통계청에서 조사하는 10월부터 12월 까지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물벼는 포장에 없는 상태로 매입하므로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비용(811원/40kg)을 차감한 가격이다.

매입 대금은 산지 쌀값이 결정되기 전에 중간 정산금 형태로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4만원/40kg을 지급하고, 정산은 최종 매입 가격이 확정된 연말에 실시

한다.

올해에도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제도’를 실시한다. 단, 보성군은 ‘새정무’ 단일품종만 수매한다. 매입 현장에서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새정무’ 이외 품종 수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인구 고령화와 부녀화로 수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올해도 ‘수매 도우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매 도우미는 2인 1조로 상하차와 수매 절차 전반을 도우며 출하 농가의 애로 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